

배우 라미란 “삶은 제 뜻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영화 ‘정직한 후보2’ 주상숙 역할 맡아
2020년 153만 관객 ‘정직한 후보’ 후속

연극을 하던 배우 라미란(47)은 박찬욱 감독이 2005년에 내놓은 ‘진절하한 금자씨’로 영화를 시작했다. 출산 후 아이가 막 돌이 됐을 무렵이었다. 오디션을 보러 오지 않겠느냐는 전화를 갑작스럽게 받았고,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가서 오디션을 봤다. 그때 따낸 역할이 ‘금자’에게 ‘눈화장을 왜 그렇게 진하게 하나요’ 묻는 교도소 동료 역할이었다. 그렇게 영화판에서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다치는대로 일을 했다”고 말했다. 우선 연기가 재밌었고, 현장을 경험하면서 공부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때 오디션 성공 확률이 90%정도 됐죠.”

수 년 간 단역을 맡았던 그는 점차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조연으로 올라섰다. 그해 2010년 무렵이었다. 라미란은 이후 7~8년간 영화·드라마를 오가며 40여편에 출연했다. 그렇게 또 한 번 다치는대로 일을 하고 나니가 다시 한 번 기회가 찾아왔다. 주연 배우를 맡아달라는 제안이었다. 그때 라미란은 40대 중반이었다. 남성 배우들 중에는 뒤늦게 주인공을 맡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여성 배우에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 일단 영화 속에 여성 캐릭터가 많지 않은데다가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인 영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라미란에게 생긴 것이다. 라미란이 첫 주연을 맡은 영화는 ‘걸캅스’(2019)는 169만명을 불러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제 라미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 ‘정직한 후보’를 통해 영화 시리즈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2020년 개봉해 153만 명이 본 ‘정직한 후보’의 후속작 ‘정직한 후보2’가 28일 공개된다. 개봉을 앞두고 만난 라미란은 “선물같은 일”이라며 “삶은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처음 주연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나 싶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게 온 일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저한테 온 이 파도들을 다 맞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회일비 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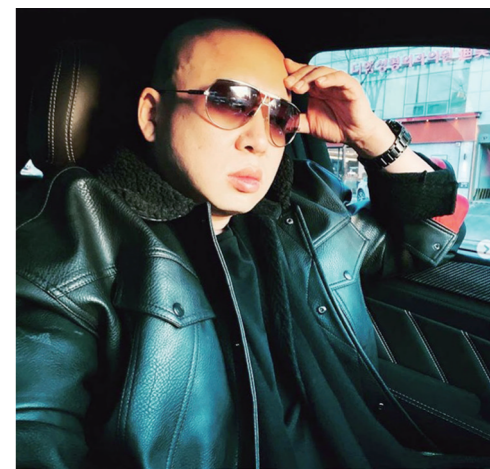
‘정직한 후보2’의 콘셉트는 전작과 거의 같다. 정계 복귀를 꿈꾸던 정치인 ‘주상숙’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시 거짓말에 손을 대자,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없는 입인 ‘진실의 주둥이’가 그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전작에선 주상숙 혼자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이번엔 비서실장 ‘박희철’까지 진실의 주둥이를 갖게 된다. “사실 전작이 엄청나게 흥행한 작품은 아니잖아요. 후속작을 하자니까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원하는 관객이 없는데 2편을 내놓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더 웃겨야 한다는 압박과 조금 부담도 생겼고요. 그런데 저는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후회하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본 겁니다.”

일단 했기 때문에 이제 ‘정직한 후보’ 시리즈엔 ‘라미란 콤피디’, 라미란에겐 ‘코미디 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하지만 라미란은 이런 말들에 연신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주어진 텍스트대로 연기를 할 뿐이지 주상숙이라는 캐릭터, 주상숙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 이야기는 감독과 작가가 만든 것이라는 얘기였다. 게다가 라미란은 코미디 연기만 하는 이미지로 굳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코미디 연기에 대해 “매력이 없다”고 농담 섞인 진담을 했다.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힘드니까 매력이 없어요.(웃음) 관객을 웃기기 위해 연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대본에 맞춰서 제가 할 수 있는 연기를 최대한 합니다. 모든 걸 쏟아내는 거죠. 감독님이 그중에 맘에 드는 걸 고르세요. 그냥 막하는 거예요.(웃음) 코미디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라미란은 연기가 제일 재밌다고 했다.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어떤 현상이든, 어떤 연기를 하든 촬영하러 가는 게 즐거웠으면 한다고 했다. “큰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최소한 55세까지는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직도 현장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처럼 저도 오래 연기해보고 싶어요.”



“난 4중인격”...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과거 발언 조명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비공개로 돌렸다.

27일 노원경찰서에 마약 투여 혐의로 체포된 돈스파이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기리 돈스파이크’에 게재된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노원서는 이달 초 한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돈스파이크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전날 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그는 마약 간이검사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돈스파이크가 소지 중이던 필로폰 30g을 압수했다. 일반적으로 필로폰 1회 투여량은 0.03g으로 이는 1000회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0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3개월만에 구독자수 10만을 넘겨 유튜브 본사로부터 실버버튼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그가 체포되자 그의 유튜브 영상들은 물론, 소셜미디어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돈스파이크가 지난달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한 것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내 머릿속에서 4명이 회담을 하면서 산다. 4중 인격”이라며 스스로 자해를 의심하기도 했다. “민수, 민지, 돈스파이크, 아주비가 산다. 4명 성격이 모두 다르다”라고 하기도 했다.

채널A는 돈스파이크가 출연한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물론 돈스파이크가 등장한 자사 다른 방송인 ‘서민갑부’ 등의 재방송과 다시보기 VOD 등을 모두 중단하거나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돈스파이크는 지난 6월 6세 연하 비연예인 신부와 결혼, 아내가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온다.



로이킴, 데뷔 10주년 정규 앨범 발매...싱글 선공개

가수 로이킴이 내달 정규 앨범 발매에 앞서 선공개 싱글을 발매한다.

소속사 웨이크웍스는 28일 공식 SNS를 통해 로이킴의 컴백 일정이 담긴 커밍순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 따르면 로이킴은 내달 14일 선공개 싱글, 25일 4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11월 19~20일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앨범은 지난 2020년 5월 발매한 싱글 앨범 ‘살아가는 거야’ 이후 약 2년 5개월만에 발매하는 신보이자, 로이킴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반가운 컴백 소식과 함께 더욱 업그레이드된 음악을 예고한 로이킴의 이번 행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팝, ‘빌보드 글로벌 200’에 15곡...블랙핑크 8곡



“배우 남궁민 결혼합니다” 11세 연하 진아름과 결실

내달 7일 신라호텔에서 웨딩마치

배우 남궁민(44)과 모델 진아름(33)이 부부 결실을 맺는다.

남궁민 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는 28일 “두 사람이 다음달 7일 오후 6시3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남궁민과 절친한 배우 정문성이 사회를 맡는다.

두 사람은 2016년 단편영화 ‘라이트 마이 파이어’로 인연을 맺었다.

남궁민이 연출하고, 진아름은 ‘해주’를 연기했다.

남궁민은 지난해 MBC 연기대상에서 ‘검은 태양’으로 대상을 받은 후 “아름아, 내 곁에 항상 있어줘서 고맙고 사랑해”라고 전했다.

남궁민은 1999년 드라마 ‘내 꿈을 펼쳐라’로 데뷔했다. ‘리멤버-아들의 전쟁’(2015~2016)에서 분노조절장애를 지닌 재벌 3세 ‘남규민’을 열연, 주연으로 발돋움했다.

이후 ‘김과장’(2017) ‘조작’(2017) ‘닥터 프리즈너’(2019) ‘스토브리그’(2019~2020) 등이 흥행했다. SBS TV 금토극 ‘천원짜리 변호사’에 출연 중이다.

진아름은 2008년 모델로 데뷔했다.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시즌2(2010)로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 SBS TV 예능물 ‘골 때리는 그녀들’, KBS 2TV ‘펜스타링’ 등에 출연했다.

뉴스



그들 ‘블랙핑크’를 선봉으로 한 K팝이 미국 빌보드 내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를 휩쓸었다. 이번 주 차트에서 K팝이 무려 15곡이나 포함됐다.

27일(현지시간) 빌보드 차트에 따르면, 10월 1일 자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 타이틀곡 ‘셋 다운’과 선공개곡 ‘핑크 베놈’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19일 먼저 공개된 ‘핑크 베놈’은 해당 차트 지난 주 4위에서 2계단 뛰어 올라 5주 연속 차트인했다.

또 ‘셋 다운’과 ‘핑크 베놈’은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도 각각 1위와 2위에 올랐다. 앞서 ‘핑크 베놈’ 역시 9월 3일 자 차트에서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두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한 가수는 블랙핑크를 비롯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윙프트, 캐나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 그리고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밖에 없다.

게다가 특히 그간 빌보드 글로벌 200차트 1위와 2위를 동시에 차지한 그룹은 블랙핑크가 처음이다. 여성 아티스트로서도 역시 블랙핑크가 처음이다. 솔로 아티스트까지 통틀어 따지면, 드레이크와 헤리스타일스에 이은 세 번째다.

2020년 9월부터 차트 순위를 매긴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은 전통적인 방식의 방송 점수 등을 포함하지 않고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을 토대로 순위를

블랙핑크 정규 2집 ‘본 핑크’ 수록곡 전부 올린 셈

정한다. 음원 위주로 노래를 듣는 젊은 청취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인기 차트인 셈이다. 팝의 강국인 미국을 포함한 ‘빌보드 글로벌 200’ 순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블랙핑크는 이번 주 ‘빌보드 글로벌 200’에 ‘셋 다운’과 ‘핑크 베놈’을 비롯 총 8곡을 진입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본 핑크’ 수록곡 전부를 올린 셈이다. ‘타이파 걸’ 16위, ‘하드 투 러브’ 27위, ‘더 해피스트 걸’ 34위, ‘에 에 에’ 43위, ‘탈리’ 52위, ‘레디 포 러브’ 60위다. 특히 ‘블랙핑크 X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2022 인 게임 콘서트 : [더 버추얼]’을 통해 먼저 공개됐던 ‘레디 포 러브’는 이번에도 재진입했다.

이밖에 이번 주 ‘빌보드 글로벌 200’에선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미국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의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가 44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 대표곡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는 각각 133위와 160위를 차지했다.

K팝 4세대 간판 걸그룹들도 해당 차트에서 활약했다. ‘아이브’의 ‘에프터 라이크’가 47위를 차지했다. ‘뉴진스’의 하이프 보이와 ‘어텐션’은 각각 71위와 97위다. 두 곡은 ‘글로벌(미국 제외)’에선 각각 46위와 48위에 올랐다.

블랙핑크와 함께 3세대 K팝 걸그룹을 대표하는 ‘트와이스’ 멤버 나연의 솔로곡 ‘팝!’은 198위에 올랐다.

K팝으로 분류는 되지 않지만 국내 콘텐츠 기업 핑크 폰의 ‘아기 상어’는 90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이번 주 빌보드 차트에서 주요 차트 중 하나로 통하는 ‘아티스트 100’에서도 블랙핑크가 1위를 차지했다. 대세 K팝 보이그룹 ‘NCT 127’은 3위다. 블랙핑크의 ‘본 핑크’와 NCT 127의 정규 4집 ‘질주(2 Baddies)’는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도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의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는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지난 주 90위에서 10계

단 반등하며 80위에 걸리며, 15주 연속 차트인 했다.

빌보드 내 또 다른 주요 차트인 메인 싱글차트 ‘핫100’ 이번 차트에선 블랙핑크의 ‘셋 다운’이 25위로 들어왔다. ‘핑크 베놈’은 지난 주 74위에서 17계단 역주행하며 57위를 차지했다. 5주 연속 차트인이다. 이에 따라 블랙핑크는 이번 주 ‘핫100’ 차트에 두 곡을 동시에 진입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K팝 음반이 ‘빌보드 200’을 장악하고 있지만 북미 시장 내 대중적인 풀뿌리 인기가 반영되는 ‘핫100’에서 꾸준히 높은 성적을 거두는 K팝 팀은 방탄소년단 밖에 없었다.

‘핫 100’은 피지컬 싱글 및 디지털 음원 판매량, 스트리밍 수치, 라디오 에어플레이 수치, 유튜브 조회수 등을 합산해 노래의 성적을 총망라한다.

블랙핑크는 ‘셋 다운’, ‘핑크 베놈’ 포함 지금까지 총 9곡을 ‘핫100’에 진입시켰다. ‘핫100’에서 블랙핑크 곡 중 가장 높은 곳을 찍은 노래는 셀레나 고메즈와 협업한 ‘아이스크림’(13위)이다. 이밖에 ‘하유 유 라이크 댓’(33위), 레이디 가가와 함께 한 ‘사위 캔디’(33위), ‘킬 디스 러브’(41위), ‘뚜두뚜두’(55위), ‘러브식 걸즈’(59위), 두아 리파와 함께 한 ‘키스 앤 메이크 업’(83위) 등이 ‘핫100’에 들었다. 블랙핑크 멤버들의 솔로곡인 로제 ‘온 더 그라운드’(70위), 리사 ‘라리샤’(84위)와 ‘머니’(90위)까지 포함하면 ‘핫100’에 진입한 곡은 12곡으로 늘어난다. K팝 걸그룹 중 단연 압도적인 숫자다.

블랙핑크 제외 K팝 걸그룹 중 ‘핫100’ 안에 진입한 팀은 2009년 원더걸스 ‘노바디’(76위), 작년 트와이스 ‘더 필스’(83위)밖에 없다. 여성 솔로까지 포함하면 2016년 그룹 ‘2NE1’ 출신 씨엘(최고 94위)이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핫100’에서 정국과 미국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의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가 44위에 오르며, 13주 연속 차트인했다.